



# 1

## 운동회로 싹 틔운 한국 육상경기



## 1

# 근대 올림픽대회와 조선의 운동회

조선에 개화의 물결이 몰아치던 1896년 5월 2일. 이날 조선의 수도 한성에서는 ‘화류회花柳會’라는 이름의 낯선 운동회가 열리고 있었다.<sup>001</sup>

이보다 한 발 앞선 1896년 4월 6일 지구 반대편 그리스 아테네에서는 첫 근대 올림픽대회가 열렸다. 제1회 아테네 올림픽대회에서는 100m, 400m, 800m, 1500m 레이스와 110m 허들, 높이뛰기, 멀리뛰기, 장대높이뛰기, 세단뛰기, 포환던지기, 원반던지기, 마라톤 등 12개의 육상경기 종목을 포함해 9개 경기(육상경기, 역도, 레슬링, 펜싱, 사격, 사이클링, 수영, 체조, 테니스) 43개 종목에서 선수들이 자웅을 겨뤘다.

이들 경기 중 ‘올림픽대회의 꽃’은 역시 육상경기였다. 세단뛰기에서 근대 올림픽대회 최초의 금메달리스트(미국의 제임스 B. 코널리, 13.71m)가 탄생했을

<sup>001</sup> 예부터 우리나라에는 화류라는 놀이가 있었다. 봄과 가을 이웃마을 서당끼리 요즘 운동회에 해당하는 화류놀이를 벌였다. 종목은 필드하키 격인 장蹴치기, 줄다리기, 릴레이식 바가지 밟기 등이었다. 놀이에서 이긴 서당은 풍장을 치며 마을을 돌았는데, 집집마다 떡상을 차려 이들을 융숭히 대접했다고 한다. 화류회는 이 화류놀이의 이름을 따서 열린 우리나라 최초의 근대식 운동회였다. -이규태, 한국인의 생활문화 1, 신원문화사, 2000년, 제1부 ‘추억의 공통분모 운동회’ 중에서.

뿐 아니라, 그리스의 목동 스피리돈 루이스가 마라톤에서 우승하여 개최국 그리스에 첫 금메달을 안겨 주며 역사에 길이 남는 스포츠 스타가 되었다.

## 달리기·공던지기·멀리뛰기·높이뛰기 화류회 풍경

다시 1896년 5월 2일 조선의 서울 동소문 밖 삼선평(지금의 성북구 삼선교 인근). 화류회가 열리는 대화장 입구와 너른 공터 둘레 곳곳에는 붉은 깃발이 바람에 나부끼고 있었다.<sup>002</sup> 화류회는 관립외국어학교의 분교인 영어학교 학생들이 소풍과 운동을 겸해 벌인 야외놀이였지만 행사에 초청된 내빈과 삼삼오오 구경 나온 동네 사람들까지 수백여 명이 자리를 메워 적잖이 성황을 이뤘다.

장내가 정돈되고 학생들의 집단체조가 시작되면서 대회의 막이 올랐다. 학교 교장 격인 영국인 허치슨이 심판을, 같은 나라 출신인 헬리팩스가 기록을 담당했다. 레이스의 길이를 걸음걸이 수로 정한 300보, 600보 달리를 필두로 공던지기, 대포알 던지기(포환던지기)가 이어졌다. 멀리뛰기, 높이뛰기도 뒤를 이었다. 대부분 당시로선 생소한 육상경기 종목이었지만 바야흐로 우리나라 육상경기의 씨앗이 뿌려지는 순간이었다.

던지기나 뒹뛰기 기록은 몇 자 몇 치로 측정했다. 특이한 것은 달리의 스타트 신호였다. 우선 진행자는 검은 우산을 받쳐 들고 참가 선수들에게 “제자리에 서옵시오.”라며 준비동작을 시킨다. 그런 다음 진행자가 우산을 아래로 잡아 내리면 선수들이 일제히 달려 나가는 식이었다. 선수 대부분이 양반 자제들이라 경어를 쓰지 않을 수 없어서였다.

<sup>002</sup> 첫 화류회 이야기는 이규태, 2000: 고두현, 재미있는 육상 경기 이야기, 2011 대구 세계육상경기선수권대회 조직위원회, 2008, p51; 이학래, 한국체육사연구, 국학자료원, 2003, p257~260 등으로 재구성한 것임.

12인조 동아줄 당기기(줄다리기)가 진행됐고 이어 당나귀 20필을 타고 달리는 이색 종목이 등장했다. 첫 근대 운동회라고는 하나 여흥적인 색채가 짙은 대회였다. 그런데 경기에 나선 당나귀들이 가다 말다 하거나 뒤로 가기도 하는 등 목가적인 경주로 연신 관중들의 웃음을 자아냈다. 경기가 끝날 때마다 관중들의 갈채 속에 입상자들이 속속 호명되고 이들에 대한 시상이 이어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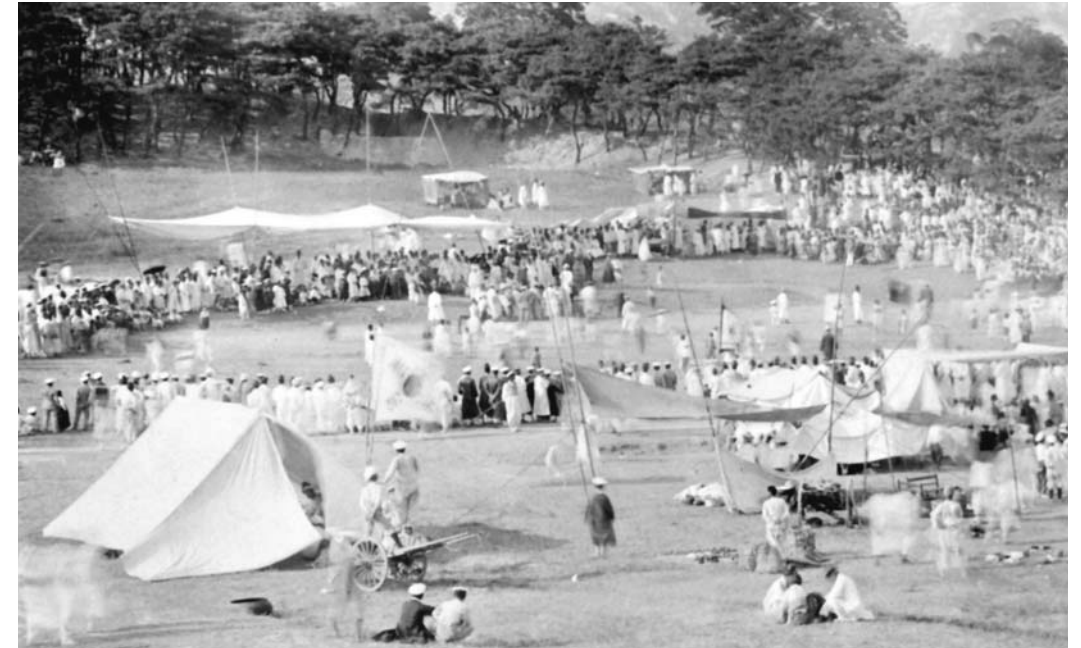
이윽고 해질녘, 운동과 놀이가 두루 섞인 첫 화류회는 다음을 기약하며 교사와 학생들의 즐거운 함성과 함께 막을 내렸다. 이것이 우리나라에서 열린 첫 육상경기대회였다. 비록 한 학교 차원의 행사였지만 장안의 화제였던 만큼 독립신문도 체력 배양을 강조하며 첫 운동회 소식을 전했다.

영어학교 교사와 학도들이 이달 이튿날 동소문 밖으로 화류를 갔다니 오래 학교 속에서 공부하다가 좋은 일기에 경치 좋은 데 가서 맑은 공기를 마시고 장부에 운동을 하는 것은 진실로 마땅한 일이니, 다만 마음과 지각만 배양할 것이 아니라 조선 사람들이 몸 배양 하는 것도 매우 소중한 일이니, 몸 배양 하는 데는 맑은 공기에 운동하는 것이 제일이요, 목욕을 자주 하여 몸을 깨끗하게 하는 것이 제일이라.<sup>003</sup>

근대식 육상경기가 등장한 영어학교의 운동회는 구한말을 관통하는 일대 유행을 낳았다. 개화기 각종 학교가 만들어지면서 새롭게 등장한 유행은 바로 운동회였다.

첫 운동회가 끝나고 얼마 지나지 않은 1896년 5월 31일 훈련원(지금은 철거된 동대문운동장 자리)에서 관립소학교 연합운동회가 열렸다. 이 대회에는 장

<sup>003</sup> 독립신문, 1896년 5월 5일자.



<sup>004</sup> 1907년 북악산 자락에서 열린 한 연합대운동회의 모습. 구한말 근대 육상경기가 빠르게 보급되면서 운동회가 전성기를 이뤘다. 마당 한가운데 태극기가 보인다.

동·계동·정동·매동 소학교 학생 181명이 참가했다. 연구자에 따라서는 이 대회를 한국 최초의 운동회라고 주장하기도 한다. 다음은 이태웅의 '구한말 최초 운동회에 대한 이설異說'이라는 논문의 해당 부분을 옮긴 것이다.

1896년 5월 31일 관립소학교 연합운동회를 한국 최초의 운동회로 주장하는 이유는 1896년 5월 31일 훈련원에서 시행한 서울 관립소학교 운동회는 처음으로 연합운동회의 성격을 띠고 있는데, 이전의 화류花柳나 일반적이고 상징적인 운동運動에 비해 최초로 운동회라는 정식 명칭을 사용했으며, 장소는 삼선평으로 정했다가 훈련원으로 옮겨서 행했다. 관람자는 교사 외에도 정부 고관들이 참석하여 구경했으며,

운동회를 마친 후에는 애국가를 부르는 의식을 가졌고, 운동회 며칠 전부터 독립신문의 광고란을 통해 널리 홍보를 했으며, 불상사에 대한 책임을 물어 교사들에게 행정처분까지 내린 것으로 보아 운동회로서의 다양한 요소를 갖추고 있으므로 한국 최초 운동회로 규정을 하여도 전혀 손색이 없기 때문이다.<sup>004</sup>

이듬해인 1897년 4월 2일 흥화문 밖 산 위에서는 경성학당 창립 1주년 기념 운동회가 열렸다. 이날 대회에서는 300보, 600보, 1350보 경주와 대포알 던지기, 공 던지기, 멀리뛰기, 높이뛰기, 당나귀 달리기, 줄다리기 등이 펼쳐졌다.

그런데 그 즈음 초기 화류회의 경기 종목 명칭은 대단히 문학적이었다. 예를 들어 소년 단거리 종목을 제비가 나는 것을 배울 때라 해서 ‘연자학비(燕子學飛)’, 청년 중거리는 가을 기러기가 떼 지어 날아가는 것에 비유해 ‘추안군상(秋雁群翔)’이라 했다. 또한 멀리뛰기는 ‘비어섬랑(飛魚閃浪)’이라 해서 물고기가 물결 사이를 빠르게 뛰어오른 것에 비유했고, 높이뛰기는 큰 물고기가 높이 뛰어오르는 모습을 빗대 ‘대어발호(大魚跋扈)’, 장대높이뛰기는 잠자리가 나부낀다는 뜻의 ‘청령번풍(靑蛉翻風)’이라 했다.<sup>005</sup>

### 운동회에 등장한 태극기와 애국가

1897년 4월 27일에도 훈련원에서 관·공립소학교 운동회가 열렸다. 특히 이날 운동회에서 애국가를 부르고 대회를 주도한 인사들은 조선 국기의 중요성,

<sup>004</sup> 이태웅, 구한말 최초 운동회에 대한 이설, 한국체육학회지, 2005, p41.

<sup>005</sup> 이학래 외, 한국체육사, 지식산업사, 1994년, p190.

자주 독립 등을 역설했다.

……오늘날 조선 학교 학도들이 여기 모여 대운동회를 할 때 이 마당을 조선 국기로 단장을 하였으니 그걸 보거든 조선 인민도 차차 국기가 무엇인지 알며 국기가 소중한 것을 아는지라 ……이렇게 학도들이 모여 운동회를 할 때에 국기를 모시고 하는 것은 조선 인민들이 차차 조선도 남의 나라와 같이 세계에 자주 독립하는 것을 보이자는 뜻이라…<sup>006</sup>

영어학교는 1897년 6월 16일 다시 훈련원에서 대운동회를 열었다. 이날 대회는 정부 국무대신, 각국 외교관과 그들의 부인 등 내빈과 함께 관람객이 1000여 명에 달할 정도로 성황을 이뤘다. 대회에서는 영국공사관의 서기관인 윌리스가 선수를 심사하고 결정했다. 같은 영국공사관 직원인 교사 허치슨과 터너가 심판원, 헬리팩스가 기록원으로 경기를 진행했다.

각국 공사관, 영사관의 외교관들과 그 부인들이 조선 군사의 호위를 받으며 가마를 타거나 직접 말을 몰고 입장했다. 개막을 알리는 나팔 소리가 울리자 영어학교 학생들은 총을 메고 행전(각반)을 찬 모습으로 손님들이 있는 대청까지 발맞춰 행진했다. 평소 학생들은 제식훈련을 받고 있었다. 경기는 학생 대표가 큰 소리로 중앙 대청의 손님들에게 개시를 알리면서 시작됐다. 학생들은 경기를 진행하는 윌리스나 심판들과 영어로 자유롭게 의사소통을 했다.

경기 종목은 300보 달음질(청년부, 소년부), 600보와 1350보 달음질, 공 던

<sup>006</sup> 독립신문, 1897년 4월 29일자.

지기, 대포알 던지기, 멀리뛰기, 높이뛰기, 2인3각(사람 둘이 세 다리 달리기), 당나귀 달리기, 줄다리기 등 총 12개 종목에 걸쳐 육상경기와 여흥적인 것이 섞여 있었다. 달음질에 참가한 선수들은 하나같이 갓을 벗은 맨상투 바람이었다.

내빈들을 위한 레이스도 마련됐다. 2인3각, 12명이 한편이 된 동아줄 당기기 등이 그것이다. 이날 운동회 마지막 하이라이트는 '당나귀 타고 달리기'였다. 이 레이스에는 나귀 20필이 동원됐는데 한꺼번에 달리기 시작하자 연병장에 먼지가 자욱했다.

시상은 영국 총영사의 부인 손조가 맡았다. 수상자들은 장갑을 낀 그녀의 손을 가볍게 잡고 난 뒤 상품을 받았다. 경기마다 1, 2, 3등 입상자들에게 전해진 부상은 중국 상하이에서 사온 은회중시계, 시곗줄, 장갑, 은병, 주머니칼, 명함갑 등 값비싼 수입품들이었다. 대회를 주최한 영어학교와 영국공사관의 외국인들, 이들과 친분이 있던 조선의 개화파 인사들이 300원이나 되는 돈을 추렴해 상하이까지 가서 사온 것이었다.

이날 대회장엔 대한국기(태극기)가 휘날렸다. 행사가 끝나자 참가자들은 일제히 황제를 위해 만세삼창을 불렀다.<sup>007</sup> “대군주 폐하 만세!” “대군주 폐하 만세!” 학생들은 곧이어 내빈과 영어학교 선생들을 위해 “천세 만세!”를 외쳤다.

이날 대회는 많은 관중들에게 근대적 스포츠의 가치를 깊이 인식하게 했다. 본격적인 운동회 시대를 예고하는 첫 대회였으며, 형식을 갖춘 최초의 육상경기 대회라고 할 수 있다.

영어학교는 1895년에 공포된 근대적 교육령에 의해 설치되었다. 서구적 근대 교육제도를 도입한 첫 실험장이었다고 할 수 있다. 학생들은 근대적 군사훈련도

<sup>007</sup> '이달 십육일 오후 네 시 반에 영어학교 학생들이 훈련원 안에서 대운동회를 열었는데...문과 대청 앞은 조선, 영국, 미국 국기들로 모양 있게 단장하고...총을 멘 학생들이 연병장에서 행진이 있을 후 경기가 전개되었는데...청한 손님들과 그 외 천여 명 구경한 사람들이 헤어진 후에 돌아가는데 사람마다 영어학교를 칭송하고...학생들이 대군주 폐하를 위하여 만세를 부르고 학교 선생들과 온 손님들을 위하여 갓들을 벗고 천세를 부르더라.' -독립신문, 1897년 6월 19일자.

받았다. 그 근본은 바로 충군애국이였다. 1896년 5월 25일, 영어학교 학생들은 러시아공사관 마당에서 고종 황제가 친히 지켜보는 가운데 군사훈련을 시범하기도 했다. 영국인 해군장교가 학생들을 조련했고, 황제는 그 영국 장교에게 상을 내려 격려했다. 한마디로 외국어학교 학생들은 국가가 키우는 미래 공무원이자 황제의 근위대였던 것이다.

한국 최초의 운동회가 무엇이나는 앞으로 새로운 자료가 발견됨에 따라 얼마든지 바뀔 수 있다. 손환·박상석은 2009년 발표한 논문 <한국 최초의 운동회에 관한 연구>에서 지금까지 한국 최초의 운동회로 알려진 1896년 5월 2일 영어학교의 화류회보다 1년여 앞서 최초의 운동회가 열렸다고 주장했다.<sup>008</sup> 이 논문에 따르면 1895년 개교한 을미의숙乙未義塾의 설립자 김윤식의 일기인 《속음청사續陰晴史》 1895년 4월 18일자에 한국 근대 운동회에 대한 기록이 남아 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十八日, 己未陰微雨, 午後大風, 今日 乙未義塾 六處學徒三百餘名, 會于訓練院, 設大運動會, 余往觀之

해석하면 18일 보슬비가 내리고 바람이 부는 오후, 을미의숙 6처 학도 300여 명이 훈련원에서 대운동회를 개최했는데 김윤식이 가서 보았다는 내용이다. 손환·박상석은 이 논문에서 “한국 최초의 운동회를 명확하게 밝히기 위해서는 구한말 야기되었던 아관파천(1896) 이전에 설립된 각급 학교의 기관지, 각급 학교의 설립자 일기 등의 자료에 대한 면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sup>008</sup> 손환·박상석, 한국 최초의 운동회에 관한 연구, 한국체육학회지, 2009, p21.

## 훈련원에서 열린 연합대운동회 성황

1898년 5월 28일에는 관립외국어학교 6개 분교 연합대운동회가 훈련원에서 열렸다. 개별 학교 단위 운동회가 학교 간 연합운동회로 진일보한 것이다. 대한 제국 중앙 정부의 대신, 협판, 국장 등 관료들이 이 대회에 모두 찬조금을 냈다. 훈련원 대청 동북 3면은 각국 국기로 단장하고 중앙에 대한국기(태극기)를 높이 세웠으며 그 양쪽으로 참가 학교의 교기를 세웠다.

참가 학교별로 복색도 달랐다. 일어학교는 청색, 영어학교는 홍색, 러시아어 학교는 녹색, 한성사범학교는 자주색, 프랑스어학교는 황색, 중국어학교는 주황색 띠를 사용했다.

이날 동대문과 훈련원 주변엔 구경꾼들이 구름처럼 몰려들었고, 참관자가 무려 수만 명에 달했다고 한다.<sup>009</sup> 이날 입상자들에게는 책상, 수첩, 자명종, 주머니 칼, 연필, 필통 외에도 담배(지권련), 물부리(담배파이프), 서양떡통이 수여됐다.

연합대운동회에서 채택된 육상경기 종목은 100보·220보·440보 달리기, 포환던지기, 멀리뛰기, 높이뛰기 등과 씨름이 포함됐다. 당시 세계 각국의 운동 경기가 100마(yard=91.44cm), 220마, 440마 등의 종목을 정식으로 행하고 있던 터라 이 대회에서도 마제(碼制)가 채택된 것으로 보인다.

1898년 5월 31일 관·공립소학교도 훈련원에서 연합운동회를 열었다. 운동회 수입금은 빈민구호에 썼고, 종목은 100보·200보 레이스, 높이뛰기, 2인3각, 방울 맞추기 등으로 이전 운동회와 비교해서 여흥적인 종목이 거의 사라졌다는 것이 특색이다.<sup>010</sup> 당시의 육상경기는 체조와 함께 가장 초기에 보급됐다. 물론 시설이나 규칙이 제대로 마련되지 않은 채 친선 경기의 성격이 강했다. 하

<sup>009</sup> 독립신문, 1898년 5월 31일자.

<sup>010</sup> 독립신문, 1898년 6월 2일자.

## 전통과 충돌한 초기 육상경기

육상경기가 도입되던 초기는 우리 사회에 전통적 분위기가 강하게 남아 있던 때여서 특히 1350보 달음질 같은 장거리 레이스에서 문제가 발생했다. 일례로 외국인 교사들은 트랙을 왼쪽으로 돌아야 한다는 원칙을 강조했다. 하지만 전통적으로 오른쪽을 숭상하고 왼쪽을 천대하는 관념에 젖어 있던 양반 출신이 대부분인 학생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결국 교사들은 트랙을 오른쪽으로 돌게 할 수밖에 없었다.

여학생들의 육상경기는 더욱 큰 사회적 파문을 일으켰다. 당시 사회적 관습은 여자의 걸음걸이는 자신의 발바닥 길이 이상 벌려서는 안 되는 것이 법도였다. 그런데 달리던 여학생들이 치마 말이 흘러내려 고쟁이가 노출되자 기겁을 하며 집으로 도망쳐 두문불출하는 일도 있었다고 한다. 이에 '말세의 패속(敗俗)'이라고 상소문이 빗발쳤고, 그중에는 '양귀(洋鬼)들이 양가의 규수들을 데려다 치마를 벗겨 본다'고 개탄하는 상소문도 있었다.<sup>011</sup>

한편 초창기 창던지기는 운동장이 좁았던 탓인지 누가 멀리 던지느냐가 아니라 누가 더 높이 던지느냐로 겨뤘다. 그래서 창을 던지면 많은 심판원들이 높이를 눈으로 측정하기 위해 한데 모여 있다가 창이 떨어지면 이리저리 도망치곤 했다. 그러다 미처 피하지 못해 창에 찔려 죽는 불상사까지 있었다고 한다.<sup>012</sup>

지만 우리나라 전통적 민속 경기와 접목되면서 어느 종목보다 먼저 대중화의 계기를 마련했다.

<sup>011</sup> 이학래 논문, 2003, p263.

<sup>012</sup> 이규태, 2000, 제1부 추억의 공통분모 운동회 중에서.

을사늑약(1905년) 이전의 학교 운동회 개최 현황

개최시기	장소	주최	전거
1895. 4. 18	훈련원	을미의숙	속음청사 1895. 4. 18
1896. 5. 2	삼선평	영어학교	독립신문 1896. 5. 5
1896. 5. 31	삼선평	관·공립소학교	독립신문 1896. 5. 30
1896. 6. 23	러시아공사관	러시아공사관	독립신문 1896. 6. 25
1897. 4. 11	흥화문 밖 언덕	경성학당	독립신문 1897. 4. 13
1897. 4. 27	훈련원	관·공립소학교	독립신문 1897. 4. 29
1897. 6. 16	"	영어학교	독립신문 1897. 6. 19
1898. 5. 28	"	관립외국어학교	독립신문 1898. 5. 31
1898. 5. 31	"	관·공립소학교	독립신문 1898. 6. 2
1899. 4. 21	"	관·사립소학교	황성신문 1899. 4. 21
1899. 4. 29	"	외국어학교	황성신문 1899. 4. 26
1899. 5. 10	"	무관학교	황성신문 1899. 4. 26
1905. 3. 22(음)	홍제원	해주정토종교회학교	황성신문 1905. 5. 29

출처 : 이학래, 한국체육사연구, p258; 손환·박상석, 한국 최초의 운동회에 관한 연구, 한국체육학회지, 2009, p21.

## 근대 육상경기의 시작 운동회 전성시대

구한말에 실시된 운동회는 학교체육이라는 제도적 틀을 벗어나 일반 사회인에게 체육을 보급하고 이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었다. 또한 체육 행사뿐 아니라 유희, 오락, 연설회 등을 함께 행해 축제적인 성격을 지녔다. 그리고 민족의식 고취 등 교육적 기능과 함께 대포알 던지기처럼 군사훈련의 성격을 띤 경기도 포함하고 있었다.<sup>013</sup>

이런 가운데 우리나라 근대 체육 발전에 이바지한 서울YMCA(전 황성기독교 청년회)가 1905년 5월 22일 신흥사에서 운동회를 열었다. 사회단체가 개최한 최초의 운동회였다.<sup>014</sup> 당시 운동회는 조선인뿐 아니라 조선 거주 일본인들도 참가해 부상자 치료, 물품 기부 등의 활동을 펼쳤다.

이어 서울YMCA는 1906년 6월 흥천사에서 대운동회를 열었다. 경기 종목은 100보·220보 레이스, 높이뛰기, 멀리뛰기, 50보 2인3각 달리기, 야구, 축구,

<sup>013</sup> 김재우, 서울YMCA 체육 활동 100년사, 서울YMCA, 2009, p58~59.

<sup>014</sup> 같은 책 p59~6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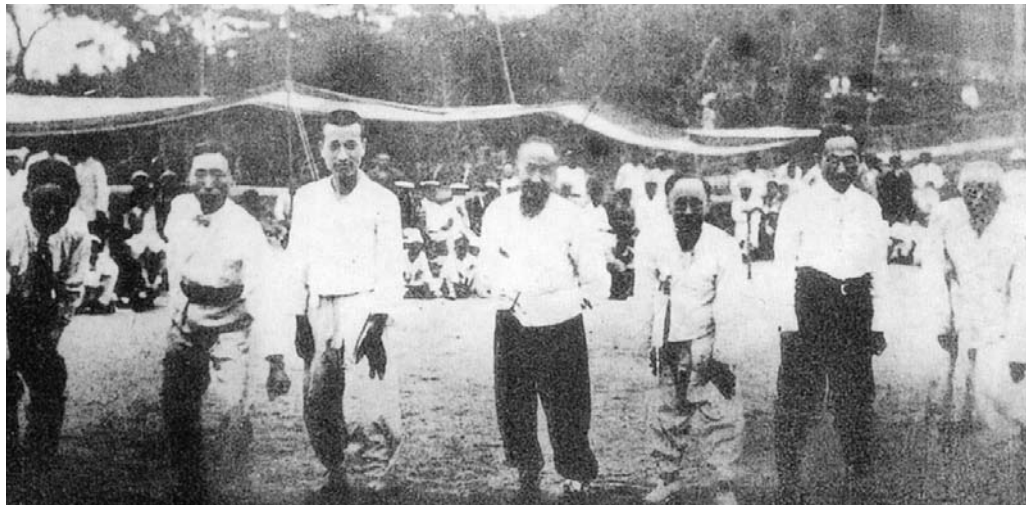


사진: YMCA 제공

- ▲ 1911년 무렵 이화학당 학생들의 신무용 교습. 1896년 설립된 이화학당은 우리나라 여성 체육의 발전에 선구자적 역할을 했다.
- ▼ 1921년 YMCA 운동회에서 달리기 경기 모습. 왼쪽부터 이인영, 홍병선, 윤치호, 김일설, 김필수, 이상재.

말타기 놀이 등이었다. 1905년 시작된 서울YMCA 운동회는 1907년 5월 18일 훈련원, 1909년 5월 8일 삼선평에서 잇따라 열렸으나 1909년을 끝으로 중단되었다. 이는 당시 운동회가 가지고 있던 민족주의적 성격이 조선 지배에 장애가 될 것을 우려한 학부의 압력과 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 전국으로 확대된 운동회 열기

1905년 을사늑약 이후 운동회는 더욱 활성화됐다. YMCA 운동회처럼 사회단체 등지로 번져 나간 것이다. 1896년부터 1910년 사이 모두 213회의 운동회가 열렸는데 이 중 사회단체 운동회가 19회, 기타 28회였다.<sup>015</sup> 1905년 이후에 열린 운동회 수는 199회에 이른다.

스포츠의 재미가 알려지면서 관청, 교회, 직장 등에서도 운동회를 개최하기 시작했다. 지역별로 운동회 개최 현황을 보면 서울 135회, 황해도 25회, 경기도 15회, 평안도 10회, 경상도 5회, 충청도 4회, 전라도 3회, 함경도 3회, 강원도 2회 등 점차 서울을 벗어나 제주도를 뺀 전국에 걸쳐 열렸다. 개최 지역이 여전히 서울에 편중되긴 했지만 점차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양상이었다.<sup>016</sup>

2, 3개 군이 모여 펼친 연합운동회도 상당수였고 민족주의 성격도 한층 강화됐다. 대한매일신보 1907년 6월 8일자에 따르면 황해도 6개군 학교 연합운동회에서는 ‘독립 기초를 공고히 하자’는 제목의 연설회가 열렸다. 이처럼 1905년(광무 9년)~1910년(융희 3년)은 운동회의 전성시대였다.

<sup>015</sup> 최근무, 한국 근대 학교체육에 관한 연구, 부산교대 교육대학원 석사논문, 2002년, p30.

<sup>016</sup> 같은 논문 p33.





구한말 휘문고보 학생들의 아령체조 모습. 교복과 모자를 착용하고 행진까지 찬 당시 학생들의 모습을 볼 수 있다.

### 학부 주최 운동회에 고종도 참관

1907년 5월 2일 한성 관·공·사립학교 춘계 연합운동회와 1908년 5월 21일 관·사립학교 비원 운동회는 당시 장안을 떠들썩하게 만든 대회였다. 비원 운동회의 경우, 1908년 5월 13일 학부學部<sup>017</sup> 주최의 연합대운동회에서 뽑힌 선수들이 8일 뒤인 21일 창덕궁 비원 마당에서 펼친 대회다.

남학생 320명, 여학생 120명 등 모두 440명과 교직원 70명, 대회 임원 40명 등이 참가한 이 운동회에는 고종과 황후가 참관해 격려하고 손수 상품을 건네주었다. 고종이 내린 상품은 은시계 10개, 연필 400곽, 우산 20개, 좋은 붓 600자루, 떡 300개, 수첩 600권, 가죽 가방 20개였다.<sup>018</sup>

당시 시계는 여간 부자가 아니면 갖지 못할 만큼 귀중한 물건이었다. 은시계

는 더욱 귀했고 가죽 가방은 상류계급의 신사나 지닐 수 있는 귀중품이었다. 《경기여고 60년사》는 또 다른 흥미로운 ‘어전 운동회’의 일화를 전하고 있다. 내용은 이렇다.

1909년 어느 화사한 봄날, 어명이 내리어 대궐 안에서 한성여고(지금의 경기여고)의 운동회를 열라는 것이었다. 장소는 창덕궁 비원 안, 옥류천이 맑게 흐르고 잔디가 곱게 깔린 뜰이었다. 평소에 훈련과 연습이 잘 되어 있었기 때문에 준비하기에 그렇게 당황하지는 않았다. 운동회 경기 종목도 평소에 닦아 오던 달리기, 뽀뛰기, 공 던지기, 간이 도수체조 등이었다. 이채로운 종목이라면 그네뛰기가 추가되어 있었다.

운동회 날은 매우 화창한 봄 날씨였으며 황제, 황후 폐하께서 운동 경기의 진행을 어람하셨다. 양 폐하께서는 경기의 진행에 따라 미소를 보내 주시기도 하고 박수를 가볍게 치기도 하셨다. 운동회가 끝난 뒤에는 황후께서 부럽다고 치사까지 하시며 조선 왕실의 가문家紋인 이화李花(자두나무 꽃)가 새겨진 버릇돌을 기념품으로 하사 하셨다.

그런데 이 어전 운동회는 후일 말썽을 불러일으켰다. 대궐 안 어전에서 여학생들이 불손하게도 반나체로 교태를 부렸다는 비난이 일었다. 심지어 신교육과 여성교육을 반대하는 보수파들은 과년한 처자들로 하여금 임금을 홀리게 한 것이라고 막말을 하고 다니기도 했다.

<sup>017</sup> 학부學部는 조선 말기 학부행정學務行政을 관장하던 중앙관청으로 오늘날의 교육부에 해당함. 1895년에 설치되어 경술국치까지 존속했다.

<sup>018</sup> 고두현, 2008, p42.

이 무렵 여학생들의 도보 경기라는 것이 있었다. 이는 단순한 소풍인 화류놀이에서 운동회로 넘어가는 과도기적 운동 형태였다. 학교에서 동대문 밖 홍릉이나 동구릉까지 걸어갔다 오는 경기다. 이 원거리 도보경기는 1910년대 성행했는데, 심한 경우 왕복 70리를 걸어 다음 날 많은 결석자를 내곤 했다. 이 경기의 주된 목적은 앞으로 시집살이의 괴로움을 참는 인내 훈련을 장려하는 뜻으로 주로 숙명여학교에서 실시했다고 한다.<sup>019</sup>

### 을사늑약 이후 일본의 운동회 폐지 압력

어쨌든 학부 주최 서울 시내 관·사립학교 연합운동회는 1907년 10월, 1908년 5월, 1909년 4월 잇따라 열렸다. 이 운동회를 통해 육상경기는 기본 종목으로 확고히 자리를 잡았다.

하지만 을사늑약으로 사실상 우리나라를 지배하게 된 일제는 1909년 12월 재정난을 핑계로 우리 정부 주최의 관·공·사립학교 연합운동회를 폐지했다. 당시 조선인들이 정신적 단결과 체력 배양을 위한 민족운동 차원에서 운동회 등 체육 운동을 활발히 전개하는 것을 두려워했기 때문이다. 이후 일본은 조선인들의 집회를 감시했다.

그 무렵 조선 팔도 곳곳에서 의병 투쟁이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었다. 이런 와중에서도 1910년 5월, 삼선평에서 서울시내 8개 사립학교 학생과 교직원 1400여 명이 연합운동회를 열었다. 오늘날 서울시 중·고등학교 대항 육상경기대회라 할 이 대회는 1912년까지 계속됐다. 특히 이 대회와 1909년 정부기관인 학부

<sup>019</sup> 김광희, *여명-조선체육회, 그 세월과의 싸움*, 서울 올림픽 기념 국민체육공단, 2001년, p88~89.

주최 연합운동회 등은 한국의 육상경기 발전에 결정적으로 기여했다.

한국 육상경기가 훗날 꽃을 피울 수 있도록 그 싹을 틔운 것이다. 이렇듯 한국에서 육상경기는 운동회를 중심으로 전국적으로 보급됐다. 종합해 보면 한국 육상경기는 한말 1900년 이전 태동해 이후 하나둘 제 모습을 갖춰 나가기 시작했다. 체조와 함께 100년도 훨씬 넘은 유서 깊은 스포츠인 것이다. 이런 시간의 흐름 속에 운동회의 형식도 점차 정돈돼 1920년대에 들어 육상경기대회라는 이름 아래 본격적인 발전의 속도를 내게 된다.

### 여성 체육의 중요성 인식시킨 초기 여학교 운동회

1886년 설립된 이화학당은 한국 여성 교육과 체육에서 선구자적 역할을 했다. 이화는 1890년 체조, 유희를 필두로 해 1913년 육상경기를 체육 교육과정에 포함시켰다. 이 학교는 운동회의 성격을 1908년 5월 창립 기념행사와 더불어 여러 관중과 학생들의 친구를 위한 ‘메이데이’ 순서로 진행했다. 당시 경기 종목은 달리기, 뽀뽀기, 공 던지기, 체조, 그네뛰기였다고 한다. 다음은 《이화 80년사》가 전하는 당시 운동회 풍경이다.

‘이 운동회를 개최하는 데 학교 당국의 애로가 많았다. 즉 학생들이 내외가 심하던 때라 공개 장소에서 운동 경기를 비롯한 기타 프로그램을 진행시키는 것을 거부하고 선생들의 권고를 받아들여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선생들은 그들을 달래느라고 진땀을 뺐다. 그러나 마침내 설득하는데 성공하여 제1회 운동회는 개최되었고 그 결과 그들의 가족과 친구는 운동회를 즐길 수 있었다. 또한 학생들도 유쾌한 가운데 행복을 느낌으로써 제1회 운동회는 성공적이었다.’

이에 앞서 1907년 5월 여학교 연합운동회가 열렸다. 구경 온 사람들은 여학생

## 한일 강제병합과 근대 체육의 암흑기

들의 경기 모습을 통해 새로운 여성 체육에 대한 인식을 갖게 됐다. 숙명여학교는 1905년 개교 당시부터 그네, 체조, 유희(무용) 등의 종목으로 운동회를 했다. 1908년에는 비원에서, 1910년에는 덕수궁에서 열린 여학생 연합 운동회에 참가했다.

이 학교는 연중행사로 10, 11월 초에 내빈, 가족, 졸업생들이 참석한 가운데 운동회를 열어 유희로 불리는 댄스를 발표하고 운동회를 치렀다. 경기 종목으로 학급을 흥백 양조로 나눠 1, 2학년은 60m 레이스, 3, 4학년은 대항 릴레이 레이스(Relay race)를 했고 기계체조, 굴렁쇠 벗기 등이 실시됐다고 한다.<sup>020</sup>

1906년 설립된 진명여학교는 1920년대까지 매년 가을 학교 운동회를 열어 육상경기와 체조, 유희, 농구의 각 학급 대항전 또는 리그전을 실시했다. 한편 초기 여학교 운동회는 여성들의 독자적인 힘으로 개최되고 있었다. 대부분 궁궐에서 행해져 관중이 일정한 계층에 한정되고 있다는 한계를 지녔다.

하지만 여성 운동회가 이 시기에 독자적으로 열렸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었다. 여학교 운동회가 일정하게 여성의 사회 지위 향상 운동과 맥을 같이한다고 보이기 때문이다. 실제 1908년 5월 14일 열린 순천군 여학교 운동회의 경우 순천군 서현 여자학회가 주최했고, 이 학회 유지의 부인들이 경비를 출연해 이뤄진 것이었다.

1908년 4월 24일 열린 자선부인회 춘기 운동회도 일반 여성의 사회 참여를 요구해 여성운동의 성격을 강하게 띠고 있었다. 또한 1910년 5월 13일 열린 서울 시내 각 사립여학교 운동회에서 이를 총괄적으로 주관하는 운동회장을 여성인 윤고라가 맡았던 점도 궤를 같이한다고 볼 수 있다.<sup>021</sup>

운동회는 구한말 민족주의적 성격의 체육을 사회적으로 보급하는 기능을 했다. 이 때문에 운동회는 일제의 감시와 탄압의 대상이 됐다. 당시 학부 차관 다와라 마고이치가 1910년 7월 13일 조선주차헌병대사령부朝鮮奏節憲兵隊司令部에서 열린 각도 헌병대장회의에서 한 발언을 보면, 일제는 운동회를 일종의 ‘집단 무장 시위’로 보고 이를 통해 조선인의 결집을 두려워했음을 알 수 있다.

운동회에 관하여서도 역시 묵과할 수 없는 폐단이 있다. 특히 대규모의 운동회일수록 더욱 위험 풍조를 나타내고 있다. 지난해 내가 평양에 당도하여 목격한 바 평남 일원의 학교연합운동회는 단순히 그 규모의 광대성뿐만 아니라 나팔 행진을 하며 북을 치며 마치 무장적 시위행진을 하는 식의 운동회로서 군사적 행동이며 이는 교육 본지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많은 경비를 손실하고 과업을 파하고 그 결과 학업을 빙자하여 불순의 경거망동을 꾀하는 것으로써 학부는 이런 운동회의 개최에 대하여 누누 훈령함으로써 경고한 바 있으며 그 연합운

<sup>020</sup> 유민희, 한국 근대 여성의 학교 체육-기독교계 여학교를 중심으로, 동덕여대 체육학과 대학원 석사논문, 2002년, p36~61 발췌.

<sup>021</sup> 최근무 논문, 2002, p36



동회의 범위는 일군-郡 이상을 넘지 않도록 하는 방침으로 임해온 것인데 심히 유감된 일이다.<sup>022</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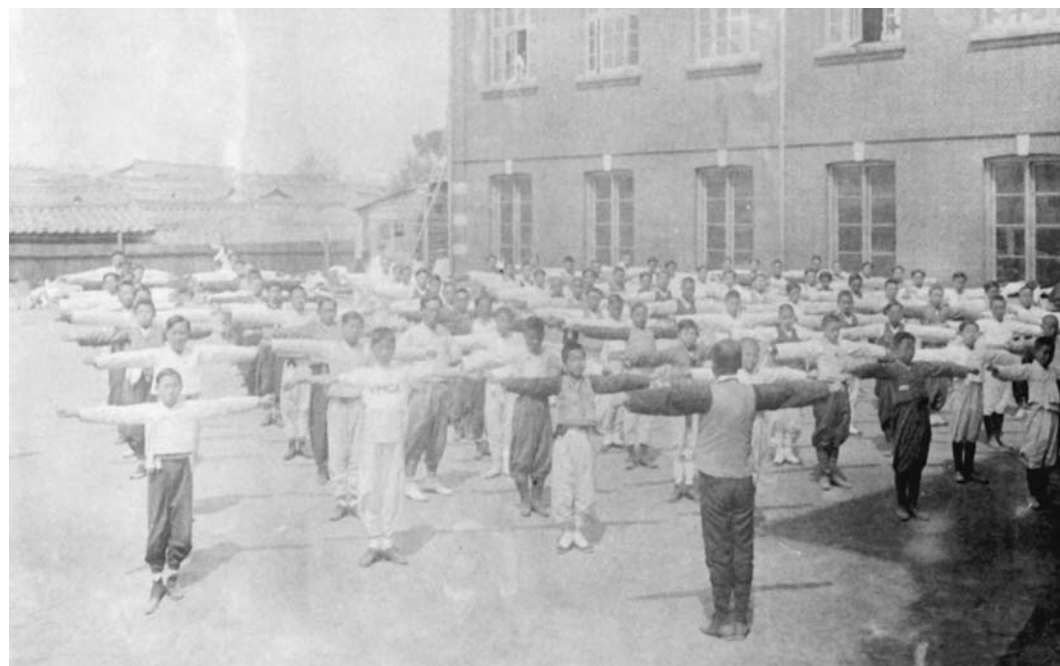
### 뜨거운 열기 속에 아수라장이 된 연합대운동회

이런 와중에도 운동회는 열렸다. 1910년 5월 14일 서울 동소문 밖 삼선평에서 오성학교, 보성학교, 청년학관, 배재학당, 경신학교, 중앙학교, 휘문의숙, 양정학교 등 8개교가 개최한 사립학교 연합대운동회가 대표적이다. 이 대회는 연설회나 애국가 등을 통해 민족의식을 고취한 구한말 운동회와는 성격이 좀 달랐다.

말하자면 오늘날 연례 행사로 행해지는 서울시 중·고등학교 육상경기대회와 비슷한 모습이었다. 그런 만큼 육상경기 발전에 상당한 기여를 한 대회로 평가되고 있다. 시내 8개 학교 학생과 교직원 등 참가 인원만 1400여 명에 이르러 장안의 화제가 된 대회였다.

그러나 1912년 5월 10일 용산 청파정에서 열린 제3회 연합대운동회에서 일어난 불상사는 일제에 운동회를 탄압할 빌미를 제공하고 말았다. 문제는 당시 육상경기규칙이라는 것이 제대로 마련되어 있지 않은 데에서 비롯됐다. 상황은 이랬다.<sup>023</sup>

당시 참가교는 휘문의숙, 배재학당, 청년학관, 보성중학, 청년학원, 오성학교 등 8개교였다. 첫 대회에 버금가는 1000여 명의 참가자가 운집한 청파정. 경기가 진행될수록 각 학교 학생들의 응원은 열기를 더해 갔다. 그 속에서 우승을 다투는 선수들 사이에 팽팽한 긴장감이 흘렀다.



▲ 1910년대 대운동회 광경. 이 무렵 운동회가 민족주의적 체육을 보급하는 역할을 하자 일제의 감시와 탄압의 대상이 됐다.

▼ 우리나라 근대 체육 발전에 기여한 YMCA 체조 모습. YMCA는 1905년 우리나라 사회단체로는 처음으로 신홍사에서 운동회를 열었다.

<sup>022</sup> 통감부 경무총감편, 경무월보, 1910, p6; 김재우, 서울YMCA 체육 활동 100년사, 2009, p61 재인용.

<sup>023</sup> 이학래, 2003, p318과 《양정 100년사》 p111 등으로 상황 재구성.

하지만 레이스 시간이나 거리 측정은 불규칙했고 경기 진행도 엉성해서 예전과 큰 차이가 없었다. 거리는 정해진 것이 아니라 운동장을 몇 바퀴 도는냐에 따라 '1주 경기' '4주 경기', '8주 경기' 라고 했다. 시간 측정은 커녕 피니시라인을 가리키는 테이프도 없어서, 심판이 등급을 식별하는 깃발을 가지고 있다가 선수에게 주고 임원들이 입상자를 시상대로 데리고 가는 식이었다.

몇 차례 레이스가 끝나고 장거리 레이스만 남았다. 거리는 운동장 여덟 바퀴. 스타트 신호와 함께 8개교를 대표하는 선수들이 저마다 앞다퉈 나갔다. 앞치락 뒤치락 치열한 레이스 속에 서서히 선두권의 윤곽이 드러나기 시작했다.

이윽고 선두와 꼴찌는 한 바퀴나 차이를 보이고 있었다. 그런데 경기를 지켜보던 한 심판이 자기도 모르게 흥분하여 선두를 달리던 선수가 피니시라인에 들어오기도 전에 뛰쳐나가더니 한 바퀴나 남은 꼴찌에게 1등기를 주고 말았다.

일순간 경기는 엉망이 돼 버렸고 이에 격분한 우승권 선수가 속한 학교 학생들의 항의가 빗발쳤다. 그러자 다른 쪽 학생들의 야유가 터졌다. 서로 고성이가다 끝내 난투극으로 번져 대회장은 아수라장이 돼 버렸다. 이것이 유명한 '임자(子) 청파 소란 사건'이다. 결국 일제 당국은 이 사건을 트집 잡아 다음과 같이 사립학교 연합운동회의 개최를 금지하는 조치를 취하기에 이르렀다.

경성부내 사립학교에 있어 각 학교 연합운동회의 개최가 자주 있었다. 이것은 학생으로 하여금 헛되게 운동 경기에 열중하게 하여 자칫 하면 부화경배(浮華輕俳)의 기풍에 이르게 하는 한편, 또 그것에 소요되는 비용 등에 대한 부형의 부담을 과중케 하는 결과가 되어 교육상 영향을 가져오게 하는 근심을 면하지 못하게 된다. 특히 경기 심판 등의 관계로 분요를 야기한 것과 같은 현금의 용산 청파정에서 개최된 사립학교 8개교의 연합운동회에서 보는 것으로서 그 폐단이 결코 적지 않은 것으로 생각되므로 금후에 있어서는 여러 학교를 연합하

여 서로 주최하는 운동회는 되도록 개최를 중지할 것으로 시달토록 통첩한다.<sup>024</sup>

그럼에도 이듬해인 1913년 10월 10일 8개교 학생들은 일제의 처사가 부당하다며 삼선평에서 제4회 연합운동회를 강행했다. 하지만 일제는 교육에 지장을 준다는 구실로 이들을 강제로 해산시켜 이후 사립학교 연합운동회는 중단되고 말았다. 이것으로 사립학교 연합운동회는 완전히 폐지되고, 이후로 개별 학교 단위의 운동회만 열려 사회체육의 성격을 갖는 운동회는 더는 열릴 수 없었다.

### 100년을 넘긴 한국 육상경기 역사

우리나라 근대 육상경기의 초창기는 운동회 시대다. 그리고 이는 1896년 영어학교의 첫 화류회에서 비롯됐다. 《대한체육회사》는 이 화류회가 우리 체육 운동 혁신기의 발판이 됐고 학교 운동회의 효시라고 했다.<sup>025</sup>

당시 운동회의 주 종목은 두말할 것도 없이 육상경기였다. '더 빨리 달리고' '더 높이 뛰고' '더 오래 달리려는' 인간의 본능을 경기화한 육상경기 종목이 운동회를 좌지우지했다. 물론 근대 육상경기가 도입되기 훨씬 이전에도 우리 조상들은 다른 나라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달리고, 뛰고, 던지고, 오래 달려 왔다. 다만 경주 개념이 없었던 것뿐이다. 이를 미뤄 볼 때 한국 육상경기는 20세기를 눈앞에 둔 19세기 말 도입된 체조와 함께 가장 일찍 도입된 스포츠라고 할 수 있

<sup>024</sup> 이학래, 2003, p318 재인용.

<sup>025</sup> 대한체육회사, 대한체육회, 1965년, p38.

다. 1896년을 시점으로 잡아도 2013년까지 117년이나 된다.

운동회는 비록 초기 공식적인 문헌 기록이 미흡하고 자료가 불충분하다 해도 1905~1910년에 전성기를 맞는다. 이 시기에도 육상경기가 운동회의 주 종목이었음은 물론이다. 운동회 전성기에는 학교뿐 아니라 각종 사회단체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운동회가 성행했다. 육상경기가 주가 된 정부기관 주최의 공식적인 연합운동회가 열린 것도 이 무렵이다. 학교 대항 연합운동회 역시 이 시기에 본격화했다.

1929년 1월 초 동아일보에 이길용 기자가 쓴 ‘한말 전후 조선체육계 10년 이전을 회고함’이라는 특집기사가 6회에 걸쳐 게재됐다. 여기서 이 기자는 “편의상 10년 이전을 일괄하여 초창시대”라고 명명하고, 증빙할 기록이 없어 막연하게나마 들은 대로 그 시대를 정리한다고 밝혔다. 육상경기와 관련된 내용만 간추리면 다음과 같다.

먼저 문호개방과 아울러 외래의 운동이 조선에 수입된 것은 근 30년 전후의 일(19세기 말 20세기 초)로, 구기 종목에 비해 복잡한 기술이 필요치 않은 육상경기가 비교적 일찍 도입되었다. 그러나 초창기는 대운동회라고 통칭하여 흥미 중심으로 개최된 것이 대부분이었다. 또한 시간과 거리의 측정이 ‘불규율’ 하고 거리는 그저 몇 주廻 경주라고 하는 것이 고작이었으며 테이프 같은 것도 없어서 등급에 따라 색기를 만들어 임원이 가지고 있는데, 선수가 결승선에 완전히 들어오기도 전에 자기가(임원이) 뛰어 나가 기를 전해주는 등 별별 기괴한 일이 많았다. 이는 중등학교 학생이 모여 행했다는 청파연합대운동회 때의 발생 사건이니 당시 싸움이 자못 커져서 지금으로서는 생각지도 못할 대난투를 연출하였다. 그 때문에 이것을 최종으로 경성 시내 각 학교의 연합운동회는 물론이고 학교 대항 경기도 그 형체를 감추어버

렸으니 아마 이 대회가 초창시대에 최종으로 기념할 연합대운동회였을 것이다.

이를 토대로 한국 근대 육상경기의 출발시점을 아무리 늦춰도 1910년을 넘지 않는다고 할 수 있다. 사실 ‘한국 육상경기 100년사’라고 말할 때의 ‘100년’은 모든 근대 스포츠 종목의 만행임을 뜻한다. 즉 육상경기는 한국 근대 체육에서 가장 오래된 역사를 가진 종목이다.